

유통

26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

비중확대(유지)

양호했던 오프라인

- 25일 발표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7.9% 증가. 오프라인 매출은 14.1% 증가, 온라인 매출은 3.9% 증가
- 설 효과로 식품 매출(+17% YoY)이 크게 증가. 가전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신장했기 때문에 설 효과를 제외해도 2월의 내수 소비가 좋았음
- 백화점은 의류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카테고리. 1월(여성정장/캐주얼, 남성의류, 아동스포츠 평균, +16.6% YoY)에 이어 2월(+18.9% YoY)에도 백화점 채널 내 의류 매출이 YoY 고신장한 점이 인상적
- 올해 백화점 중심으로 유통 기업 주가가 매우 양호했음. 정부의 추가적인 추경 등이 계획되어 있고 출생아수/혼인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유통 섹터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이어질 걸로 전망
- 다만, 소매산업 내 편의점 채널의 점유율의 유의미한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 섹터 내 편의점 기업의 상대적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 높음
- 전통 유통 기업 중에서는 신세계를 가장 선호
-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유통 채널의 소비가 둔화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. 그러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수소비가 크게 둔화될 수 있음

할인점: 홈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중

-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5.1% 증가. 구매건수는 0.4% 증가, 구매단가는 14.7% 상승. 설 효과로 식품 매출이 18.8%로 크게 증가
- 2026년 3월까지 홈플러스는 14개점 폐점. 4월 추가적으로 3개 폐점 예정이며, 이에 따른 기존점 신장 효과는 기존추정치 대비 이마트 +0.4%p, 롯데마트 +0.3%p로 추정

백화점: 3월도 좋아요

-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5.6% 증가. 구매건수 8.7% 증가, 구매단가는 15.6% 상승하며 시장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
- 백화점은 시장 내 유통성 및 혼인건수/출생아수 증가에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채널. 인바운드 관광객의 양호한 증가 또한 백화점 산업의 양호한 매출 흐름에 기여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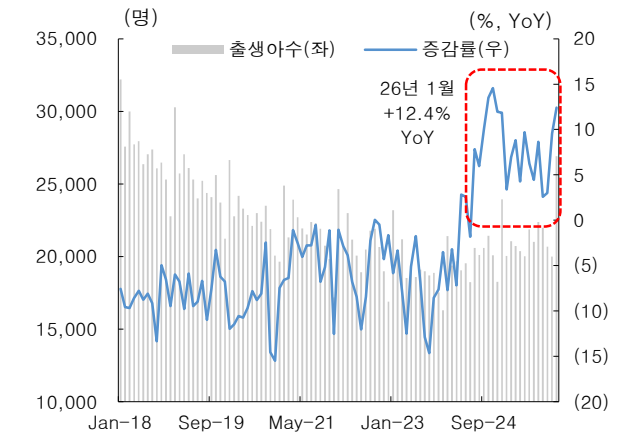
편의점: 점포수 감소가 지속

-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.0% 증가했으며, 구매건수는 0.6% 증가. 7개월 만에 구매건수가 플러스 전환한 점은 긍정적. 그러나 편의점 3사의 점포는 전년동기대비 2.9% 감소하여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

김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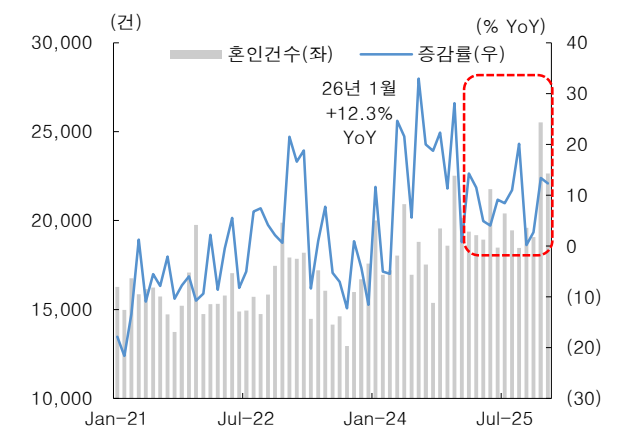
myoungjoo.kim@koreainvestment.com

[그림 1] 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출생아수가 YoY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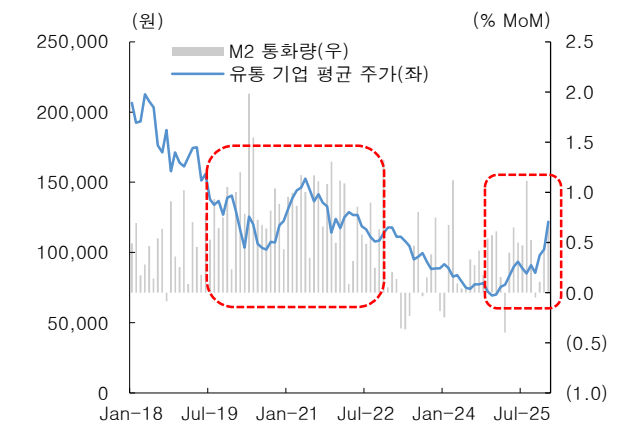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포털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2] 출생아수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또한 24년 4월 이후부터 2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감률을 기록 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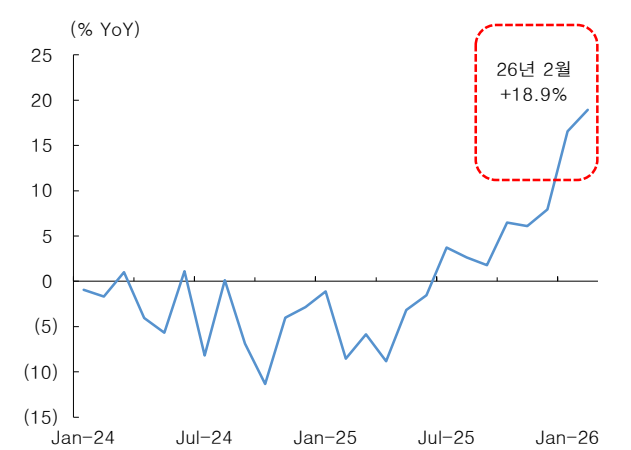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포털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3] M2 통화량의 MoM 증가와 전통 유통기업의 주가 흐름 추이.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했던 구간에 전통 유통 기업의 주가가 양호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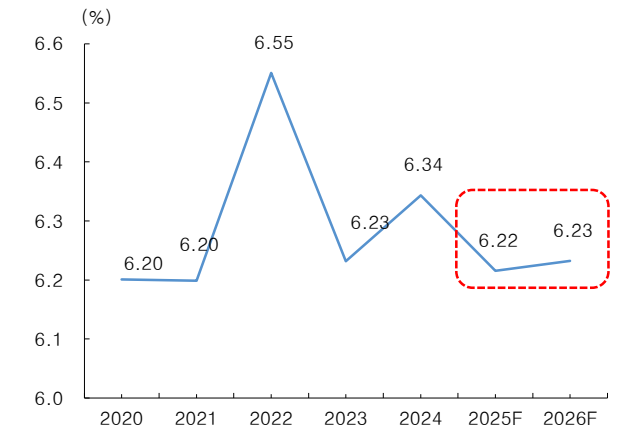
주: 전통 유통 기업은 이마트, 롯데쇼핑, 현대백화점, 신세계, GS리테일, BGF리테일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4] 백화점 기업의 의류 매출 증감 추이. 2025년 7월부터 꾸준히 의류 매출 증가하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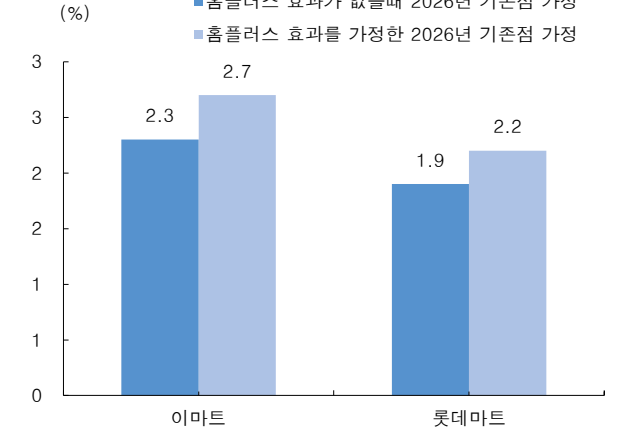
주: 의류는 여성정장, 여성캐주얼, 남성의류의 평균임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5] 소매산업 내 편의점 채널의 점유율. 2025년 대비 2026년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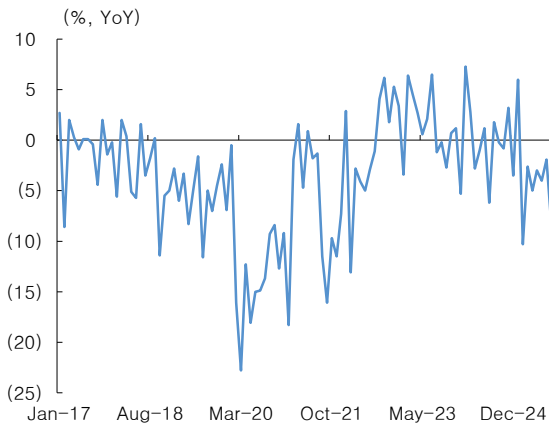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포털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6] 17개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이마트와 롯데마트 수혜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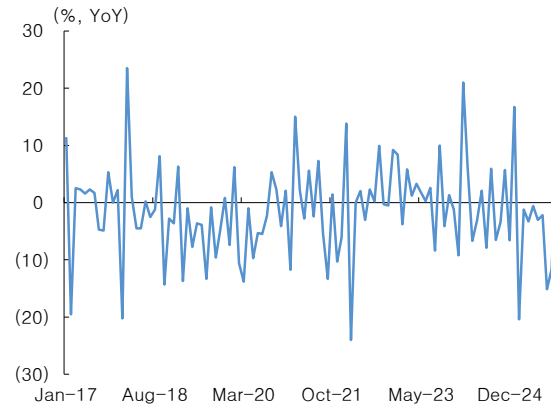
주: 올해 2월까지 폐점한 홈플러스 점포는 14개. 4월에 3개 점포가 추가 폐점 계획에 있음
자료: 언론보도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7] 할인점 구매건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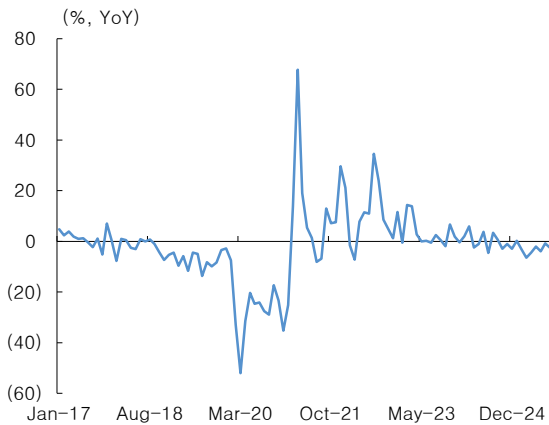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8] 할인점 매출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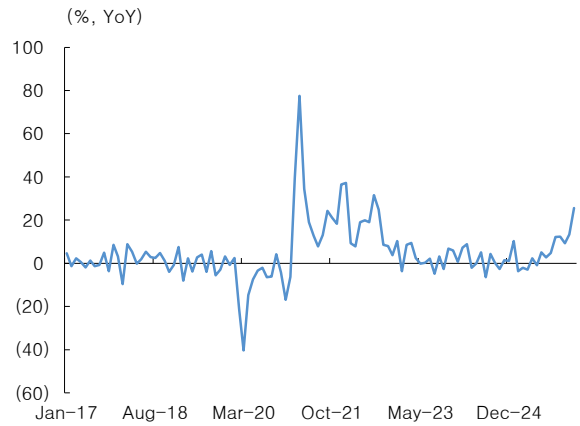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9] 백화점 구매건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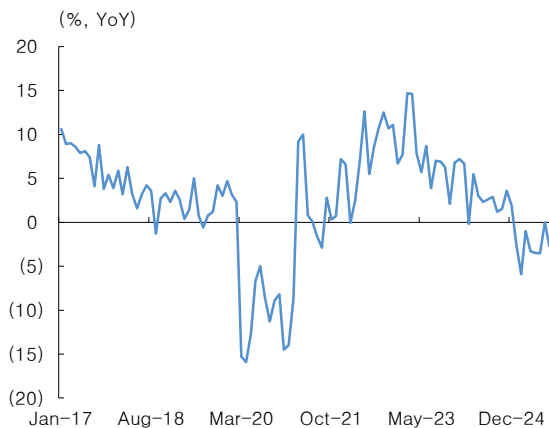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10] 백화점 매출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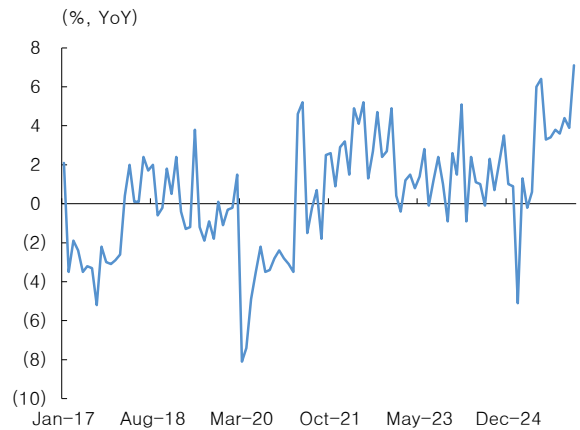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11] 편의점 구매건수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12]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투자증권

■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현재 신세계, BGF리테일, GS리테일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

- 매 수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
- 중 립 : 시장 지수 대비 -15~15%p의 주가 등락 예상
- 비중축소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
-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

■ 투자등급 비율 (2025. 12. 31 기준)

매수	중립	비중축소(매도)
81%	19%	0%

※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

■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

- 비중확대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
- 중 립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비중축소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

■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
■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■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,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■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